

보살의 길

2008년 가을호 제 35호



노인의 날 기념 운동회



사회복지법인 해명복지원
해명불교양로원

별명 이야기!



채 명 석 생활지도원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다지 기억에 남는 별명이 별로 없다. 고등학교때나 이름에 빗대어 '명석'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웠을뿐이다.

가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을 때 별명을 들어 볼까? 생활하면서는 거의 잊고 지내는 것이 별명이 아닌가 싶다.

내가 근무하는 양로원에는 저마다 별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가령 예를 들면 칠칠치 못하다하여 "터떨이", 많이 배우셨다하여 "대학생", 말을 못하신다하여 "병어리", 귀가 잘 안들리신다하여 "꺼먹이", 막무가내로 행동하시는 분은 "무대포" 그밖에도 "하숙생", "경상도", "도리도리", "깍다리" 등 여러 가지 외모와 사연들을 이유로 서로 별명들을 지어주시고 그렇게 불리우고 계신다. 어르신들은 이름보다는 별명을 더 잘 기억하시고 부르기도 편하시어 그렇게 하시는것 같다. 어르신들이 서로 별명을 부르시는것을 보고 있노라면 나도 같이 마음이 넉넉해지는것은 어르신들과 같이 생활하며 어르신들을 닮아가는 내 자신에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가 해명양로원에 입사한지 5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5년전 처음 봤던 양로원 뒷산의 단풍도 지금처럼 붉었을까? 되돌아보지만 기억이 잘나질 않는

다. 세상은 많은 것이 바뀌었는데 양로원은 여전히 그대로다. 목소리가 크셨던 할머니는 오늘도 변함없이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계시고, 항상 무언가를 찾아다니셨던 할머니는 오늘도 여전히 무언가를 찾고 계신다. 어르신만 다른 어르신으로 바뀌었을뿐 생활은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근무하는 시간동안 후회는 없지만 그래도 아쉬운 여운이 남는 것은 섬김을 직업으로 갖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한 불만족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나는 누가 나에게 직업을 물어볼 때 양로원에서 어르신을 보살펴드린다고 대답을 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돈도 벌고 좋은 일도 한다며 "정말 좋은 직업가지셨네요" 라고 말을 한다. 그런 말을 들을때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을수가 없다. 어르신들에 대한 내 마음가짐의 부족함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거의 똑같은 일상의 연속에 안주함도 하나의 유일 것이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차지마라..너는 누군가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 이었는냐" 하는 누군가의 말처럼 내가 지금 해야 할일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여야 하는지, 새로운 다짐으로 시작하는 내가 되길 기원하며 두서없는 글을 마친다.

할아버지 할머니께

전유나 (문백초등학교 6-6반)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문백초등학교 6학년 6반 전유나 라고 합니다.

제가 양로원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께 편지 쓰는 것이 처음이라 많이 부족합니다.
양로원에 계시시면서 외롭거나 힘들거나 그러시지 않으신지요.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이라면 정말 외롭고 힘들것 같은데.....

저는 학교에서 양로원이라는 말만 들어도 '아 봉사활동 하는 곳이구나' 하며
단순하게 생각했었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가실 곳이 없어서 계시는구나 하고
생각 했습니다. 그러나 저번에 양로원에 갔다 와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양로원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뵈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말동무도 해드려야겠고
조금이나마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봉사활동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외로우시지 않게 예쁜 손자 손녀가 되어 드릴게요.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박상태 (문백초등학교 6-6반)

전 그동안 할머니 할아버지생각 많이 했어요.

전 양로원 갈 때 마다 비가 오더군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올 때면 이상하게
마음이 많아지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좋습니다.

그래서 양로원에 웬지 모르게 가고 싶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착하게
굴진 않았지만 이젠 다릅니다.

전 양로원을 갔다오고부터 집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께 더 잘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양로원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오래오래 사세요.



※ 문백초등학교 6학년 6반 담임 유상용선생님은 7년째 월1회 양로원에서 작은공연을 하고있습니다.

실습생의글 을 마 치 려

내가 처음 실습을 시작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실습 마지막 날이 되었다. 한달 열흘 동안 실습을 하면서 할머니들과 정도 많이 들었는데 헤어질 생각을 하니 아쉬운 마음이 앞선다. 귀가 어두워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할머니들의 대화를 귓등으로 들으면 동문서답(東問西答)이라 웃음이 나오곤 했다.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아 답답해하는 할머니들 사이에 내가 통역 역할도 하고 농담도 하며 웃음으로 보낸 시간들이다.

그 중에 스님 시봉(侍奉)을 십년 하셨다는 유 춘화 할머니는 인연법을 배운 탓인지, 내가 도와주는 작은 친절에도 유난히 고마워하시며, 내생(來生)에는 이 고마움을 꼭 갚겠다고 입버릇처럼 말씀 하시곤 했다. 어느 날 목욕을 시키는 날이었다. 등을 밀어주고 있는데, 나의 다리를 손으로 잡으며 “고마워, 아이고 고마워, 내생에는 내가 이 은혜를 꼭 갚아야지. 내가 얼른 몸을 바꿔 다시 태어나서 우리 선생님 늙으면 목욕시켜주러 와야지. 이 다음 선생님 늙어서 목욕시켜주는 사람 있으면, 그때는 내가 온 줄 아세요. 나 이 은혜 꼭 갚으러 올 거예요.” 하시는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서 눈물이 확 쏟아졌다.

뜨거운 물로 목욕을 시키다 보니, 더워서 땀으로 옷이 젖었는데, 눈물까지 쏟아져서 땀인지? 눈물인지? 얼굴은 온통 물을 끼얹은 듯, 땀과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순간순간 타월로 얼굴을 닦으며 할머니들의 목욕을 끝냈다. 나를 이 양로원과 인연을 닿게 하여준 것도 감사하고, 이 나이에, 봉사할 수 있는 요만큼의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해서 자꾸 눈물이 나왔다. 일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도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내가 이 일을 그만 둔다면 어디 가서 이렇게 큰 감동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니, 늦은 나이지만 이 일을 시작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엔 할머니들의 실수로 변이 범벅이 된 화장실을 청소할 때는 거북하고 괴롭기도 했다. 그렇지만 밀그림에 색칠 잘하는 것만이 오로지 희망인 듯한 그들의 단순 사고를 보며, 세상 일 다 부질없다는 생각과 장롱 한 짝과 설합 두개가 그들의 재산 전부인 것을 보고,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가졌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종이 위에 푹 소리를 내며 얼룩으로 번집니다.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체험한 모든 것들은 앞으로 생활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정 숙 자
(광주여자사이버대)

혜명 한마당



| 바자회 |

9월 27일 혜명보육원 바자회에 양로원도 함께했습니다. 창고를 뒤져 쓰지 않는 이런저런 물건과 양로원 어르신들이 접은 종이접기 작품을 내다 팔았습니다.



| 퍼니밴드 공연 |

8월 29일 서울문화재단 지원으로 퍼니밴드 공연이 있었습니다. 6명의 남자들이 신나고 재미있는 공연으로 어르신들에 즐거움을 드렸습니다. 공연의 열기로 모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노인의 날 기념 운동회 |

10월 2일 지역의 경로당어르신들을 모시고 노인의 날 기념 운동회를 했습니다. 던지고, 달리고, 터뜨리며 서로 이기려고 경쟁하며 가을하늘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올해는 양로원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늘 오늘처럼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 민들레모임 |

매주 목요일 아침엔 어르신들 5명이 소모임 실로 내려오십니다. 5명의 자원봉사자와 결연이 되어 이야기도 듣고, 종이접기도 하고, 한글도 배우며 말벗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동화를 열람히 듣고 계시네요. 민들레모임 자원봉사자님께 감사드립니다.



| 원예활동 |

월1회 오셔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는 우담바라 자원봉사팀이 9월 활동에서는 이른 화분만들기를 했습니다. 화창한 가을날 화분의 꽃보다 자원봉사자와 어르신의 웃는 얼굴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 연꽃공원나들이 |

7월 30일 더운 여름날, 저녁을 먹고 어르신들과 안양의 연꽃공원나들이를 나갔습니다. 푸르게 펼쳐진 연잎과 수줍게 핀 연꽃을 보며 여름저녁의 여유로움을 즐기며 산책을 했습니다.



| 피자헛 |

7월 17일 피자를 드시고 싶은 분 신청을 받아 피자헛에 다녀왔습니다. 원에서 시켜드시던 피자 보다 분위기도 좋고 더 맛있으며 피자와 스파게티를 알콩달콩 나눠드셨습니다.



| 페르시아전 관람 |

7월 10일 신나는 예술여행 지원으로 페르시아 특별전을 관람 했습니다. 직원과 어르신들이 짝을 지어 설명을 드리며 관람 했습니다. 신기한 유물들을 보며 옛날 이야기도 나누며 재미있게 관람했습니다.



| 미각테스트 |

9월 18일 보건소에서 식생활교육을 3회에 거쳐 실시해 주었습니다. 영양교육, 금주·금연교육에 이어 마지막 3회째는 미각테스트로 식사를 짜게 하시는 편인 어르신들에게 편음식의 해로운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혜명동정



9월 10일 기쁨은향남부이점 추석년분방문



8월 30일 박철근 국무차장 방문및홍리실 직원아현봉사



7월 31일 하기수 안양2도소소장님 방문

* 시설개요

- 시설명 : 혜명양로원
- 운영재단 : 대한불교 조계종 도선사
- 개원일 : 1982년 4월 10일
- 설립자 겸 시설장 : 박재근 (현성큰스님)
- 정원 : 64명 (남28명/ 여:36명)

* 입소대상(무료입소)

- 입소대상 :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입소신청 : 거주지동사무소(상담 및 신청)
관할구청(심사 및 의뢰)
금천구청(심사 및 의뢰)
양로원(상담 및 입소결정)

* 입소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수급자증명서
4. 건강진단서(보건소발행)
5. 증명사진 4장
6. 우리은행 통장
7. 주민등록증, 도장

* 현재 입소인원(9월 30일 현재)

- 총 63명
- 할아버지 : 27명 할머니 : 36명

* 직원현황

- 총 16명
- 원장 1명 사무국장 1명
- 시설과장 1명 간호사 1명
- 영양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 생활지도원 5명 위생원 1명
- 서무 1명 조리원 3명

자원봉사자

2008년 7월 1일 ~ 9월 30일

동국대한방병원, 이승희·강은향, 박은주, 이정순, 민경숙, 윤숙녀, 소미숙, 고병님, 최윤금(밀그림색칠), 문덕녀, 홍순자, 박상화(대림미용실), 이푸름, 김병호(영등포교도소아발), 금천문화원무용반임호순외 6명(치과진료), 김미경(종이접기), 금천보건소, 윤순재(사랑의모임국악팀), 조규용, 고병득, 윤소원, 조맹영, 김용기(그신대침술봉사팀), 조기환(물리치료), 임지현(건강체조), 백련사신도님들, 천종임(경기민요), 김하늘 (차밍댄스), 묵향법사, 지영옥, 김상영, 묵향, 신세왕, 최미자, 이순교, 김덕문, 정지윤, 황득효, 지오 스님(찬불가봉사팀), 홍은석, 황숙희, 김영희, 선재심, 윤명심, 손정숙, 배현순, 장소순, 이호경, 전별문, 최정혜, 최현임, 마정임(반야회기), 이현옥, 배규인, 장소영, 한봉옥, 이선영, 한미정, 이영옥, 최금옥, 임은영, 안영미, 지춘자(반야회3기), 박미란(말벗), 한은옥, 한정옥, 남미영, 최소희, 고영수, 전초이, 안성수(우담바라), 김도연(이야기시간), 홍덕신, 채명훈, 장진하, 위진영, 신수진, 김도진, 강선권, 송한별, 송예솔, 박가현, 박지현, 김혜미, 권지현, 유재윤, 신수정, 신수진, 홍은지, 권지연, 박윤미, 이원근 (금강정사학사회), 이정순, 고병님, 전선순, 소미숙, 한종남(한글교실), 조청길, 임영희, 안현숙, 장미숙 (수지침)

후원자

* 혹시 소식지에 기재되지 않으신 후원자님께서서는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물품후원

송성수, 해명보육원, 시흥5동캠프, 사랑의운동본부, 박월서, 보명사, 박재근, 반야회 1기, 반야회 3기, 반야회 4기, 서서울생활과학고, 금천구청, 인천보살님, 보라매법당, 국무총리실, 기업은행, 일광스님, 셋별어린이집, 금천구의회, 우리은행, 백련사, 금천세무서, 금천푸드뱅크, 안양교도소, 서울지방병무청, 원각스님, 안양스님, 혜명회, 문백초등학교 6-6, 삼진산업, 입소자지인, 흥인규, 민들레모임, 색칠봉사팀, 서울노인복지시설협회

지로후원

윤재순 90,000	문금자 30,000	구봉순 30,000	이정호 15,000	서현종 20,000	
김기영 300,000	이애자 10,000	구충수 300,000	백승풍 30,000	안정희 10,000	
임옥수 300,000	은선사 20,000	김혜광 40,000	독지가 10,000	박세진 30,000	이장원 20,000

현금후원

한노협 72,900	박성수 120,000	최형기 30,000	권기상 150,000	증권거래소 600,000	한태규 100,000
한진택 300,000	강운호 100,000	독지가 50,000	이복자 20,000	박혜정 30,000	양보금 30,000
금천구청 40,000	조성한 20,000	유규동 30,000	안효주 400,000	보명사 200,000	마희전 40,000
한국감정원 400,000	한국청소년육성회 300,000	안양교도소 300,000	서권순 50,000		
금천경찰서 300,000	영등포교도소 300,000	행정발전위원회 300,000	금천세무서 100,000		
전정자 10,000	이순자 60,000	김주연 30,000	윤복희 50,000	서울지방병무청 200,000	
세림복지재단 4,199,800	박동필 10,000	정은정 10,000	국무총리실 1,100,000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자원봉사자모집

- ▶ 모집대상 : 개인 및 단체 누구나
- ▶ 모집내용 : 노력봉사 - 어르신 숙소 청소, 목욕, 식당보조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 치매예방·여가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의료봉사 - 의료 관련 서비스 실시
정서지원봉사 - 말벗, 책 읽어드리기, 무연고 어르신 결연

후원자모집

- ▶ 후원내용 : 현금후원 - 일반후원 1,000원 이상, 결연후원 5,000원 이상
물품후원 - 생활에 필요한 의류, 생활용품, 쌀 등
식품후원 - 어르신들 입맛에 맞는 신선한 반찬류 및 간식류(과일, 빵 등)
가전후원 - 대형텔레비전, 김치냉장고, 재봉틀, 카세트 등
생필품후원 - 락스, 피죤, 옥시크린, 각종 세제 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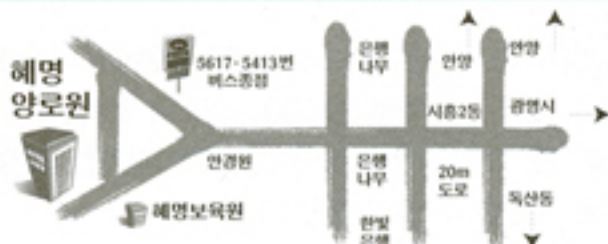
정성을 기다리는 후원금 계좌번호

- ① 지로번호 : 7655940
- ① 우리은행 : 1005-901-011284
- ① 예금주 : 혜명양로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드리는 혜택

1. 혜명양로원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혜명양로원의 모든 간행물을 받아 볼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 정산 시 비용인정 및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로원 오시는 길



- 지하철 1호선: 시흥역 마을버스 금천 01번 범일운수 종점 하차
-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역 5617번 종점 하차
신림역 5413번 종점 하차

양로원 홈페이지
www.hmtown.co.kr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혜명양로원

발행인 : 박 재 근(현성 큰스님)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41-7번지

연락처 : TEL 02)802-6765

FAX 02)892-2068